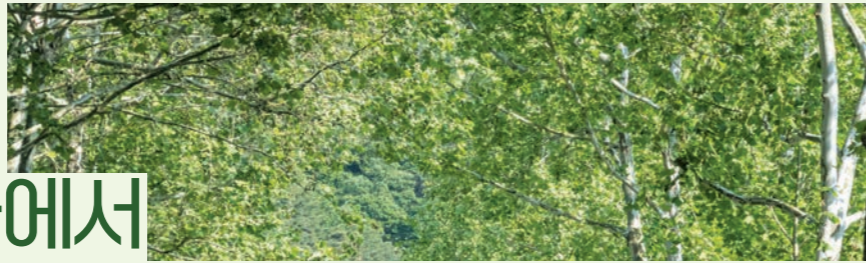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길 제5편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국도35호선 봉화군 명호면~법전면, 삼동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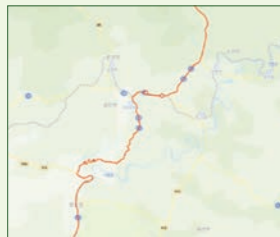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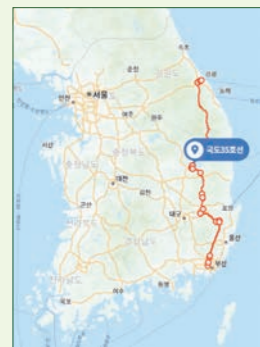
손원표 | 길 문화연구원장



답사를 시작하며

국도 35호선은 부산에서 강릉까지 연결하는 산악형 도로로서, 특히 '청량산도립공원'을 끼고 통과하는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에서 법전면 소천리로 이어지는 삼동고개 구간은 빼어난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 문화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도로이다.

삼동고개 구간은 2014년, 국토교통부 설계방침 심의과정에서 기존 산악도로를 보존하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노선으로 성능개선공사 설계 시, 기존 도로를 단순히 기능적으로 개량하는 관점이 아닌, 안전이 확보된 도로 기능과 함께 우수한 자연환경, 경관, 역사, 문화요소의 보존을 강조한 노선이다.



국도 35호선 봉화군 명호면 ~법전면 삼동고개



삼동고개와 계곡의 운해

도로가 단순히 자동차를 수용하는 공간이란 개념에서 벗어나 도로의 가치를 보존하고 함양하여 문화자산임을 널리 알리고 인식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인간의 오만과 자만심으로 자연과 문화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하며, 아름다운 경관도로를 찾아 답사에 나섰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국도 35호선 삼동고개 구간은 산악지역을 통과하여 겨울철 결빙으로 통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구간이지만 반면에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경관으로 세계 최고권위 여행정보안내서 '미슬랭 그린가이드'에서 인정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별점(★) 하나가 매겨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사진 찍기 좋은 관광명소',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드라이브 코스 Best 10',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에 선정된 청량산 운치에 취하는 산길이다.

명호면에서 법전면 구간은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한 낙동강이 운곡천 합류 지점에서 낙동강의 시발점이 되어 청량산을 휘돌아 안동호로 흘러들며, 주

변에 청량산, 청량사, 농암종택, 도산서원, 사미정, 옥계정 등 관광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이러한 자원들이 도로문화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퇴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원에서 청량산 청량사까지 걸으면서 지인들과 교류하고 사색을 즐겼던 '퇴계가 건넌 길'은 사색과 힐링의 트레킹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삼동고개를 오르내리며

봉화군의 북쪽인 법전면에서 남쪽으로 명호면에 걸쳐있는 삼동고개는 해발 464m의 높지 않은 고개이지만 옆으로 청량산, 문명산, 황우산, 미점산 등이 솟아 있고 낙동강이 명호면 소재지에서 운곡천과 합류하여 낙동강 시발점을 이루는 지점과 닿아 있다. 삼동고개 정상을 넘어 명호면 방향으로 달리다 범바위 전망대에서 계곡으로 바라보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낙동강의 역동적이고 풍부한 수량을 간직한 모습은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올 정도이며, 특히 넘어가는 석양을 받으며 자연의 색상을 은은하게 뿜어내는 울창한 삼림과 하천, 계곡은 가을철 단풍이 막바지 화려함을 뿜어내듯 온몸을 가득 채우며 힐링으로 끌어당긴다.



낙동강 상류와 범바위 전망대

삼동고개에는 도로선형에서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주도 노형동의 도개비 도로와 같은 '신비의 도로'가 있고, 근래 들어서 선형개량과 확장사업으로 찾아보기 힘들어진 '헤어핀 구간'이 있다. 그리고 도로문화 관점에서 험준한 산악을 통과하는 길

에 흔히 서려 있는, 길손이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를 잡았다는 곳의 범바위 전망대와 범바위 쉼터가 있다. 범바위에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바라보는 낙동강 상류는 지형 형국이 목마른 말이 내려와 물을 마시는 '갈마수음형(渴馬水飲形)' 형상으로, 명(明)을 상징하는 산태극 수태극 형국으로 향배하여 축원하면 소원을 성취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법전면에서 삼동고개를 넘어 명호면을 지나 안동시 외룡면으로 가는 길은 봉화의 명산 청량산과 도산서원을 찾아가는 길로 도로를 따라 옆으로 흐르는 맑은 낙동강 물줄기가 잔잔한 교향곡처럼 운율을 자아내고, 운전자의 눈길은 단층대 형상 절벽으로 간간히 나타나는 수려한 모습의 바위를 넘어 빼어난 청량산 자연 속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낙동강 시발점

낙동강 시발점에 있는 래프팅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현수교를 건너 산자락 쪽으로 강변을 걷다 보면 산, 강, 바람, 하늘, 숲, 계곡, 바위, 돌, 모든 자연이 하모니를 이루며 온몸을 가득 채우는 느낌에 어느덧 자연과 하나 됨에 빠져든다.

낙동강 시발점 주변을 돌아보고서 다시 방향을 돌려, 명호면 소재지에서 법전면 방향으로 산악도로를 오르게 되면 올라가는 길이 고도가 점점 높아지며 하늘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고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이 '신비의 도로'이다. 완만한 경사와 급경사가 이어지면서 착시현상이 생겨 내리막길처럼 보이

지만 실은 오르막길이 형성된 구간으로 우리 일행은 차량을 멈추고 내리막처럼 보이는 길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경험하고서 가파른 길의 '헤어핀 구간'을 지나 범바위 쉼터에 도착하였다.

신비의 도로 지점에서 범바위로 올라가는 구간에는 심한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 특이한 곡선교량을 가설한 '헤어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교량을 막지 않는 지점에 자리 잡은 범바위 쉼터는 길손에게 휴식처를 마련해주었다.

쉼터에 가까운 범바위 전망대에서 다시 내려다보는 낙동강 상류는 휘돌아 내려가는 모양이 어느 곳의 지형보다 웅장하고 힘이 서려 있는 형세라 바라보는 길손에게도 힘찬 에너지가 전해졌다. 길손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범바위에 서려 있는 전설은 "조선시대 고종 때, 송암 강영달이란 선비가 한양에 다녀오던 중 낙동강 용소 뒤편에서 조상묘를 원배하던 중에 나타난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줄거리로 낙동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호랑이상이 용맹한 기개를 뽐내고 있다.

다행히 국도 35호선 외룡 ~ 법전 구간에서 백미로 꼽히는 삼동고개 구간은 설계방침 심의단계에서 환경, 경관, 역사, 문화 관련 사항을 설계책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려 노력한 결과,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었으며, 도로가 훼손되지 않고 우리들의 도로 문화 자산으로 남아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삼동고개 구간을 보존하며 일부 신설도로를 계획하여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반영되었다.

신비의 도로와 도깨비 도로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보이거나 오르막이 내리막으로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는 도로를 '도깨비 도로(spook road)'라 하는데, 비슷한 이름으로 신비의 도로(mystery road), 중력 언덕(gravity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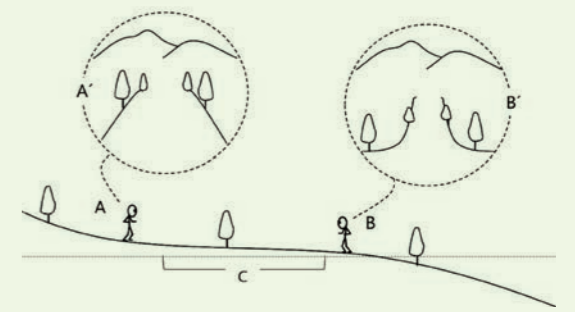
요술 도로(magic road) 등으로 불리지만 학문적으로는 반중력 언덕(antigravity hill)로 불린다. 전 세계에 이렇게 착시를 일으키는 도로는 많이 알려져 있으며 미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일본 등 약 30개국 130곳 이상이 알려져 있다(wikipedia, 2016). 우리나라에도 도깨비 도로가 다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제주도 노형동의 도깨비 도로가 1981년에 발견된 이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도깨비 도로는 관광이나 흥미의 대상으로 다뤄져서 몇몇 지자체에서 경사 착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과학적 관점과는 거리가 멀고 일부에서는 도깨비를 세워 두거나 가공된 이야기가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여 미신적 신비감을 불러일으켜 방문자들의 이성적, 과학적인 접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세종시 비암사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도깨비 도로 안내판의 설명 일부를 보면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망막에 투영하지만, 뇌가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안과 전문의들이 설명하는 반면, 지질학자들은 도로 주변의 지형지물 등의 정황 때문에 착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도깨비 도로 현상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지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경사 착시의 원인을 분석하면 이웃한 도로와 경사 대비, 주변 물체들과 관계에서 오는 맥락적 높이로 설명되며, 이 요인들은 같은 도깨비 도로 구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삼동고개 구간 신비의 도로



※ 맥락적 높이 : 관찰자 A에게 구간 C는 A처럼 비치는데 나무들의 높이 맥락으로 인해 오르막으로 지각할 수 있다.
 ※ 경사대비 : 관찰자 B에게 구간 C는 B처럼 비치는데 먼 도로와 경사 대비로 인해 바로 앞 구간이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렇게 구간 C는 다른 두 도로와 같은 방향의 낮은 경사로 도깨비 도로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완만한 경사와 가파른 경사가 연이어 있을 때, 완만한 경사가 실제와 반대 방향으로 지각될 수 있다. 가파른 언덕을 향해 관찰자가 바라보면 완만한 도로는 경사 대비로 인해 내리막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반면에 완만한 내리막 시작 지점에서 가파른 내리막을 향해 보았을 때 완만한 내리막이 오르막으로 지각될 수 있다.

이러한 도깨비 도로가 발생하는 원인을 유형별로는 시각적 단절과 맥락적 높이, 직선으로 연결된 도로에서 경사 대비, 갈라진 도로의 경사 대비, 경사 동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도깨비 도로를 통해 과학적 원리가 녹아있는 공간이란 인식을 심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도로문화 차원으로 자리 잡아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헤어핀 구간

헤어핀(hair pin) 구간이란 높은 산길을 오르내리는 도로의 곡선반경이 작게 형성되어 마치 머리핀처럼 심하게 돌아가는 형상의 구간을 말하는데, 주로 산

약지역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평면곡선 형태이다. 도시지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Lombard Street 언덕길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로선형 개량과 확장사업으로 일반국도 구간에서 점점 찾기 힘든 것이 되고 있어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다행히 일부 산악구간에는 이런 구간이 ‘뱀 길’이라 하여 최근 명소가 되어가는 추세라 헤어핀 구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로의 흔적으로 살려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도 35호선 삼동고개 구간에도 이러한 헤어핀이 교량구간에 남아 있어 편의성만 앞세워 이러한 흔적을 사라지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헤어핀 구간은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에서 지방도 737호선 정령치 구간(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정령치)이 선정되었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도 지방도 1023호선 지안재 구간(함양군 마천면 의탄리~함양읍 구룡리)이 아름다운 야경으로 선정되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문치재도 뱀고개로 불리며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 삼동고개 구간도 ‘신비의 도로’, ‘헤어핀 구간’, 범바위 전망대, 청량사, 청량산, 낙동강 래프팅, 봉화와 안동권의 전통문화 유적 등을 묶어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문화 벨트로 함양하면 좋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아름다운 도로를 경험하며 도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의 자연과 문화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국도 35호선 삼동고개



삼동고개(좌)와 정선 문치재(우) 헤어핀 구간

답사를 마무리하며

위의 답사는 ‘도로경관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개인적으로는 두 차례의 답사를 더 진행하였다. 특히, 국도35호선 삼동고개가 우리나라에 볼거리와 이야기 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로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우연치 않게도 설계방침 심의회에 올라온 이 노선의 심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삼동고개 구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행스럽게도 이 길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되어 설계책임자의 높은 인문학적 소양과 노력으로 보존되었다. 앞으로도 삼동고개 길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로 남을지,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온다. 🇰🇷



손원표
길 문화연구원장,
공학박사/기술사
(wpshon54@naver.com)